

영화관람

- 장애인들과 맨발의 기봉이 관람 -

장애인 정책 미흡했던 것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TV에 장애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전보다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간간이 그런 프로를 접하고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장애인 체험행사를 갖기도 했고, 같은 날 오아시스란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참 쑥스러웠습니다. 대통령 표 달라고 쇼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무척 저로서도 그때 후보 자격으로 체험 행사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부담 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짐하길 후보 때만 이렇지 말고 대통령 되고 나서 제대로 하자고 마음의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이 2차로 들어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꽤 버겁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정책이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가지고 간간이 강경한 투쟁들이 있어 봐서 시기시기 마다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로 우리가 3.1%, 4.6%, 4% 성장이면 OECD 다른 국가에 비하면 낮은 경제 성장은 아니지만 97년 외환위기와 그 뒤에 후유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참여정부 들어 가계부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부분 부분 고통이 있다 보니 국민들이 부담을 느껴 대통령에게 압력이 고스란히 밀려오는 바람에 경제 이외에 다른 문제를 스스로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었고, 관심을 가지면 흠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2년간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계속 자료 보고, 정책보고 말하는 전체 과정이 양극화 문제, 장애인 문제, 여성 문제, 노인 문제 등입니다. 대개 이대로 해나가면 되겠다 싶은데 특별히 너무 대책이 부실하다 싶은 쪽이 장애인 대책입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 되셨을 때 장애인 5개년 계획이 처음 시작됐고, 저희한테 제2차가 넘어왔는데, 너무나 미흡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좀 획기적으로 토대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지금 유시민 장관을 닥달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는 장애인 정책의 획기적 토대 마련하겠다는 다짐의 의미

제가 스스로가 여러분들 모시고 이 같은 행사 하는 것은 저와 우리가 모두 함께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정부 관계자, 청와대 참모들, 의원님들도 와계십니다. 서로 약속하고 부담을 주고 부담을 느끼면서 열심히 해보자는 다짐입니다. 혼자서 다짐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나 도덕적으로 더 고귀하게 보일지 모르나 정치는 현실입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압력을 받고, 공개적으로 부담을 갖는 과정이 한정된 자원을 나눠 써야 하는 국가 처지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압력

이 높을수록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잘하겠다, 꼼꼼히 신경 써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주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함께 다짐하고, 여러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라면 어떨지 모르나... 독려해 주시면서 함께 해나갑시다.

영화에 대해서 말하면, 영화를 보고 나면 머릿속에, 가슴에 남습니다. 보고서들 많이 보지만 머릿속에만 남고 몸에 진정한 결심으로, 결심으로 남아도 느낌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는 것 이상의 감동이 있습니다. 영화 만드신 분들에게 참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로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만들었으니까 돈 버셔야죠. 흥행에도 성공하시고, 돈 버시면 이런 좋은 영화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이익섭 교수님이 인사말 해주셨는데 개인적 삶 자체가 우리에게 용기, 격려를 주는 본보기들이 많습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평범한 것과 달라 그 자체가 감동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간의 의심이 왜 없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데려다 장사한다는 의심 왜 없겠습니까만,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손님 많이 올 것 같네요. 틀림없을 것 같아요. 옆에 이 교수님이 손수건 꺼내가지고.. 잘 보진 않았지만, 감동이 진한가 봅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엄 이장님 계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현준 씨 수고 많았습니다. 연기가 참 좋았습니다.

다.

저는 신경이 내내 쓰였습니다. 여기가 경사진 좌석 아니라 앉은 자리여서 머리 때문에 안보일까 싶어서 자세를 낮춰서 웅크리고 앉았는데 제가 허리가 시원치 않거든요.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느낌 함께 삭이고,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